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오징어·고등어 등 공급확대 추진

- 기획재정부, 수협 중앙회 방문 및 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 유통구조 개선 노력 점검

기획재정부는 2023년 11월 28일(화), 수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구조 및 개선 현황”도 보고받고, 연근해 어선 조업 상황실을 시찰하는 등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23.11.28.(화), 09:30 ~ 11:00
- 장소 : 수협중앙회 본사
- 참석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차관보,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물가안정현장대응팀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경제기획부장, 판매사업부장, 유통사업부장 등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¹⁾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징어와 고등어는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 및 중·대형어 생산 감소로 가격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더불어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10월 정부비축물량 방출 500톤에 이어 1,005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중이며,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태도 정부비축물량 3천 톤을 추가로 공급 중입니다. 고등어는 지난 11월 6일 긴급 할당 관세 물량 1만 톤을 시행²⁾하는 한편, 추가 1만 톤을 차주에 공고^(12.4)할 예정입니다.

천일염 가격도 지난달 14,867원/5kg(10.26일, 전년 대비 +32.7%)까지 상승했으나 정부 할인지원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적극적인 수급 대책을 통해 11.23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0% 낮은 수준인 10,239원/5kg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산 천일염을 지속 방출하는 한편, 양질의 수입 천일염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 수산물 CPI 전월 대비 : ('23.4월) 0.1 (5) 0.5 (6) △0.3 (7) △0.9 (8) △0.6 (9) △0.4 (10) 1.3
전년 대비 : ('23.4월) 6.1 (5) 6.1 (6) 6.0 (7) 5.9 (8) 5.8 (9) 3.5 (10) 3.0

2) 고등어 할당 관세 1만 톤 중 7,018톤 추천(11.17일 기준)

홍 차관보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 어종의 유통경로 및 가격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정부에서도 매주 특별물가 점검과 함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수협의 역할 및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추진현황 등도 점검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 구조적인 개선 노력도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	책임자	팀 장	장응희 (044-215-2931)
		담당자	사무관	김정호 (ddyjd@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안정현장대응팀	책임자	사무관	김승희 (shee111@korea.kr)
			팀 장	안영성 (044-215-2855)
		담당자	사무관	이재환 (lilsds@korea.kr)